

우리에게 전문건축가 시대가 올것인가 ?

Will the age of
professional architects
come to us?

얼마전

즉,

- 전문 설계분야가 무엇인가 ?
- 교회에는 나가는가 ?
- 교회설계 경험이 있는가 ?
- 한국에서야 어디 전문이 따로 있는가

•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등의 내용이었다.

내심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부탁 반자의 반으로 일을 맡기로 하고 돌아왔다.

과거 두어번 주택설계를 의뢰받고 전문가(?)에게 소개 해 본일이 있었으나 어디 주택과 비교가 되랴? 라는 생각도 들어서였다.

그후 설계경험자와도 만나고, 목사님도 뵙고, 예배도 참석하고, 국내외의 여러 자료도 수집하고 잘된 교회들을 견학하기도 하여 어느정도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 두었다.

하지만 성서적으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지, 현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는가 등의 숨겨진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더 많은 체험과 진통을 겪어야 할 것 같다.

만약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맡아 본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구태의연하게 적당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알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결 나은 작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차례의 실패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한국의 건축가는 절에도 교회에도 나가야 하고 나이트클럽도, 기원에도 다녀야 한다면 마치 한명의 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격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미래의 고도기술사회- 우주와 해양개발, 유전공학의 발달,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generation) 레이저와 광컴퓨터의 개발등-에 발맞추어 건축분야도 「INTELLIGENT BUILDING」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전문 건축가 시대」의 문이 열려야 할 시기인것 같다.

설계 작업에 선행한 기획-설계 방침과 목표의 선정-설계 조건의 확정-구체적인 설계 PROCESS의 작성-Communication 계획-구체적인 요구기능

의 분석- 현재와 미래의 주위환경의 분석-주변환경에의 영향분석-형태의 결정-Cost 계획-法 Check-평면및 단면계획-실내 환경계획-방재및 반송계획-유지관리계획등 평소 설계 PRO-CESS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현재도 고건축, 병원건축, 방송국, 전화국등 몇몇 분야는 어느정도 전문화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 된다면 현재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차원에서 순수설계 분야의 용역이 많아 질 것이며 이에 대비 해서라도 전문화는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협조하여 건축사 협회는 해마다 전문분야별로 주거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물량, 설계비등을 발표하고 미래의 추세를 진단해 주어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나 건축학도가 사회의 요구 비례와 본인의 처지에 맞는 전문분야를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현재의 단독 혹은 종합사무실 체제는 ○○전문건축사사무소 혹은 인원수 제한없이 종합병원 체제의 대규모 종합건축사사무소의 탄생이 가능하리라 라고 본다.

이렇게 전문화된 사무실들이 각 분야별로 교육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전문별 관계부처나 기관 혹은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건축가 자신은 물론 건축주, 이용자 나아가서 도시와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대가 오면 건축가가 일일이 발주자를 찾아가지 않고 설계사무실로 나오게 하여 그동안 경험을 통해 수집해 놓은 각종 자료와 도면, Computer, Slide, Video 등의 시각적인 효과까지를 동원하여 자신있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아마 건축주는 꽤 만족 해 하리라.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가 사는 이시대의 현실과 사회의 여건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 할지라도 언젠가 자연이 닥칠지도 모를 이러한 분위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대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축주는 항상 당시의 조건하에서 최고의 작품을 원하고 있는데